

# 버티는 이정희, 금가는 야권연대

### 민주당 “경선 과정 문제 사퇴해야” 진보당 “수장에 대한 예의 지켜라” 안산 단원갑도 양당후보 모두 출마

서울 관악을 지역의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난 여론조사 조작 논란이 단일화 파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4·11총선 야권연대가 균열 위기를 맞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대상자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후보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공식 후보 등록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민주당합당 김희철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광주를 방문, 통합진보당 후보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지원에 들어갔다. 이 대표

는 다음날인 23일에는 오전 5~18시 경역을 참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할 계획이라고 우위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희철 의원이 전날인 21일 밤 늦게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 체비를 갖췄다. 김 의원은 “23일까지는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를 중재해야 할 양당의 힘겨루기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민주당합당 서울시장 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은 이날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정희 후보는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희철 후보의 탈당계는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야권연대의 대상이 되는 한 축의 수장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합당이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문제는 야권 후보 단일화 파기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경선 여론조사 샘플 선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안산 단원갑 지역에서도 양당 후보가 모두 출마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합당은 백해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를 공천하고 추후 통합진보당 후보인 조성찬 변호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우정 대변인은 “2010년 7·28 재보궐 선거 때 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장상 후보와 천호선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전례가 있다”며 “안산 단원갑 지역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당합당이 끝까지 공천을 고집

한다면 우리 당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경선에서 3표 차로 승리한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도 성명을 내고 “명백한 경선 불복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야권연대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야권연대가 파국 위기를 맞자 시민사회가 나섰다. 범야권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는 이날 “규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이정희 대표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관악을 지역의 문제를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경선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합당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움직임과 안산 단원갑 후보 공천을 비판했다.

이처럼 야권연대가 균열 위기로 치달자 새누리당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야권연대 과정에서 경선 시비로 말이 많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2일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서류를 제출한 뒤 손을 맞잡고 공정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조영택, 민주당합당 박해자, 무소속 정용화 후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잘 해 봅시다”

## 광주일보·KBC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동구부터 시작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광주 동구에서 시작으로 29일 광주 서구 갑, 30일 서

구 을 선거구 순으로 65분~80분 간 녹화방송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선거구 후보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방송은 23일(동구)과 29일(서구 갑)은 각각 오후 6시에, 30일(서구 을)은 밤 8시50분에 KBC 광주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4·11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후보별 공약 등을 최종 점검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일보는 토론회 지상중계를 통해 정론과 의제를 알기 쉽게 소개해 유권자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이젠 총선 올인”

“MB대 反MB” 정권심판론 내세워... 내우외환 극복이 과제

민주당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 후폭풍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일단 민주당합당은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MB대 반(反)MB’ 구도로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권 및 새누리당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며 차별성을 극대화시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적극 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검찰 개혁 등의 민생 중심의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하면서 ‘평(총선)도 먹고 알(대선)도 먹는다’ 이중 포석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실정의 가장 큰 책임

은 박 비대위원장에 있다는 점을 공격 포인트로 잡고 파상공세를 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합당의 총선 기산도는 그다지 맑지 않다.

당초 목표 의석수를 135~140석으로 잡았지만, 잇따른 공천 파동의 여파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합당 핵심관계자는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혼전이 벌어질 전망”이라며 “총선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부의 공천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이 큰 부담이다.

‘백의중군’을 선언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여전히 선대위 합류를 꺼리고 있고, 박영선 최고위원은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호남에서는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고 구 민주계 일부 인사들이 창당한 ‘정통 민주당’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 공천에 나서면서 민주당합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균열 위기에 처한 야권 연대는 선거 구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당이 갈등을 수습하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야권연대가 흔들리거나 좌초될 경우 내부 분열 속에 중대 위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합당이 공천 반발과 야권연대 균열 등 내우외환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합당의 총선 승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새누리 비대위원 사퇴

## “인적쇄신 아쉬워...정권창출 돕겠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사퇴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비대위원 할

등을 오늘로서 마감한다”며 “지난달 공천이 처음 시작될 무렵 위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만류해 비대위원 활동을 연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 위원장이 정권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을 돕겠다”는 생각도 함께 밝혔다.

그의 사퇴에 대해선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공천 방향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는 “공천 과정의 문제점 자체가 (비대위원 사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당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추진하기 힘든 것”이라며 자신이 주도한 새 정권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실행에 옮길만한 뚜렷한 인사가 공천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박 비대위원장이 당내 화합을 생각하며 인적 쇄신에 신중함을 보인 측면이 있다”고 전제, “당을 쇄신하겠다. 국민만 바라 보고 가겠다는 것을 믿고 비대위에 참여했지만 막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사장님의 혜택이 활짝, 미소가 활짝

“KB가맹점우대적금 덕분에 사업할 맛 납니다”

KB가맹점우대적금

자유로운 목돈마련 계획 설계 | 가맹점 대금 입금주기에 따라 만기일, 자동이체 주기 등 자유 지정  
최고 연 0.5%p의 우대 이율 | 가맹점 결제계좌 우대이율, KB국민카드 사용 우대이율 등

KB가맹점우대적금 출시기념 EVENT 사장님~ 힘내세요!

• 행사기간: 2012. 2. 27 ~ 4. 30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존 응모, 2012. 5. 11 발표 예정)

이벤트1 KB가맹점 패키지에 가입하고 사업지원금 500만원 등 푸짐한 경품을 받으세요  
추첨경품: 1등(1명) 사업지원금 500만원, 2등(5명) 매장용품 100만원, 3등(30명) 화식비 20만원, 4등(100명) 적금 추가납입 5만원

이벤트2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퀴즈 풀고,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 20명)

KB국민은행